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경험 연구

이치숙¹, 변상해^{*}

¹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Study of the Care Labor Experience of Semi-Aged Caregivers

Chee-Sook Lee¹ and Sang-Hae Byun^{1*}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ling, Seoul Ven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연구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면접은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돌봄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고령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노동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care labor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semi-aged caregivers. To that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 qualitative study of 15 semi-aged caregivers working at elderly care facilities located in the Kyunggi-do region.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major focus on three categories: perception of care labor by semi-aged caregivers; stress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care labor; and insights earned through care labor. The analysis showed that semi-aged caregivers have a positive experience through care labor. This finding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semi-aged care labor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Key Words : Caregiver(s), Care labor, Elderly care facilities, Semi-aged people

1. 서론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강조되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돌봄은 국가와 이용자들이 화폐로 구입하는 하나의 상품[1]으로 보기도 한다.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는 “세대 간 효의 품앗이”, “국

가가 효를 대신 한다” 등으로 효의 성격이 강조되어왔다 [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은 민간 시설들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돈을 매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노인 돌봄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2]. 한편, 장기요양서비스가 효의 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으며, 시설서비스가 효의 속성인 애정이나 사랑, 노인의 존경 등을 바탕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데 회의적이다[3,2].

반면 다른 논의는 효의 재해석을 요구한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효의 수행이 가정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또

*Corresponding Author : Sang-Hae, Byun(Seoul Venture Univ.)

Tel: +82-10-2509-1054 email: jm1004@svu.ac.kr

Received June 16, 2014

Revised July 29, 2014

Accepted August 7, 2014

서비스 구입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4]. 일부 이러한 가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노인 돌봄의 사회화 및 시설의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가족을 대신하여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14만여 명 중 25만여 명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제도 시행 초기에는 소정의 교육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이 부여되었으나, 2010년 4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고령사회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6].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에 앞장서서 ‘세대간 효의 품앗이’를 하는 매개체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한 지 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제도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간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수발자의 사회활동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기 때문이다[7].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연구는 2014년 6월 현재 583건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양적연구이고 요양보호사들의 돌봄경험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많지 않다. 서종희[1]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약자의 위치에 있지만, 전문적인 일로 인정받고자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최희경[8]은 좋은 돌봄의 특징과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홍세영[2], 서종희[1]는 노인 돌봄노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수정[10]은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의미 있는 직업으로

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연순[11]은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노인 돌봄은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일자리이다[1].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준고령 요양보호사만을 대상으로 사회화된 돌봄노동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돌보면서 겪은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다. 현상학은 인간 의식과 체험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요양서비스에 대한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이용한 개방적 질문을 하고, 면접참여자기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요구하는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와 자료가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는 충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riage status	Religion	Years in Service
1	59	F	High school	Married	Christian	5
2	60	F	Middle school	Married	Catholic	10
3	60	F	High school	Married	None	10
4	60	M	High school	Married	None	5
5	61	M	Middle school	Married	Christian	2
6	62	F	High school	Married	Christian	5
7	62	F	University	Married	Christian	2
8	60	F	University	Married	Christian	5
9	59	F	University	Married	Christian	2
10	60	F	Highschool	Married	Buddism	1
11	65	M	High school	Separated	None	4
12	64	F	High school	Married	Catholic	4
13	60	F	High school	Married	Buddism	2
14	63	F	High school	Divorced	Catholic	3
15	60	F	University	Bereaved	Christian	3

양시설 6개소에서 근무하는 준고령 요양보호사 1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5세 이하인 연령층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정년퇴직이나 정년 후 계속 일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13].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59세에서 65세까지로 평균연령은 61세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개별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 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심층면담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허락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 에 녹취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수행되었고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 요양보호사 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준고령 요양 보호사가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대처방식은 무엇인가? 셋째, 준고령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떤 성찰적 의미를 가지는가? 가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지오르기(Giorigi)[14]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을 인도하는 주제는 ‘사태 자체로 돌아가라’이다.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현 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오르기가 제시하는 연구 방법의 필수적인 4 단계는 전체에 대한 느낌 파악, 의미단위를 구분해 내기,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 변형된 의미 단위를 연 구 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기이다[15]. 이러한 방법에 따라 먼저 녹취된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 경험에 대한 기술을 반복하여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읽으면서 발견되어 지는 의미를 표시하며 개방코딩을 하였다. 코딩한 자료 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범주를 구분하고, 구분되어진 범 주에 따라 학문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였다. 분석과정의 궁극한 내용은 전화로 통화하며 추 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Lincoln and Guba[16]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15].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 들의 생각과 실재를 잘 반영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표 현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였다. 면담을 수행한 연구자의 노인요양시설 실무 경험은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용 어와 어휘 선택에 도움이 되었고, 참여자에게 신뢰의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용성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 한 범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포화시켰다. 일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분석결과를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동료 및 선배 교수에게 자료를 공개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중립성은 연구자의 요양보호 관련 경험에 의한 가정, 편견 등에 유의하였으며, 중립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3. 연구 결과

위와 같은 방법론적 절차에 의해 도출된 노인요양시 설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 경험의 질문은 ‘준 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돌봄 과정에 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해소’, ‘돌봄 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3.1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노동에 대하여 ‘좋아서 하는 일’, ‘웃음을 찾는 일’, ‘보람을 느끼 는 일’, ‘안타까움과 실망’, ‘내 집같이 노인이 행복해 하는 일’, ‘내 부모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일’, ‘정년퇴직 후 에도 할 수 있는 일’,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 ‘남 녀 호혜적으로 하는 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3.1.1 좋아서 하는 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에서 만족하 며 ‘노후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노인 돌봄노동 과정에서 보살피고 반응하며 지 지하는 것을 포함한 신체적·정서적 활동은 보람, 재미, 활 력, 감사, 즐거움, 만족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었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저는 좀 더 빨리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웃음). 집사람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데 어찌했든 요양보호사로서의 제가 직업으로서도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디까지 사회가 받아 줄지 모르지만 쪽 이걸 해서(참여자 4). 다녀보니까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좋아요. 일하는 게 아주 좋아요(참여자 9). 너무 재미있고 만족해요. 시간도 잘 가고 좋아요(참여자 3). 일을 하면 활력 생기고 아픈 것도 없고 힘은 들어도 재미도 있어요(참여자 12). 다른 일 보다 이 일이 더 적성에 맞아요. 한 번 일을 시작하니까 쉽게 손을 뗄 수 없는 직업이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7). 감사하고 일하는 건 즐겁고 만족해요(참여자 6). 항상 저는 어디 가서라도 내가 요양보호사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어느 장소라도 어려운 사돈한테도 얘기를 하고 우리 사돈이 하는 말이 기왕이면 즐기면서 하면 좋지요. 그러더라고요(참여자 7).

3.1.2 웃음을 찾는 일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노인과 웃음을 주고받으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고 있었다. 이는 노인과의 친밀한 관계나 정서적 유대감에 기반하며 상호 작용을 통해 내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 있었다.

어르신도 웃고 저도 웃고 제가 웃음을 많이 잃어 버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어요(참여자 10). 어르신들 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같이 막 웃거나 얘기 할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웃을 수 있으니까(참여자 10).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들면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 얘기를 떨고 하면 어르신이 웃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참여자 13).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 떨 때면 어르신이 막 같이 웃고 즐거워해요(참여자 14).

3.1.3 보람을 느끼는 일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식사를 잘 하시거나 편안해 할 때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로부터의 언어적인 감사의 표현이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더욱 더 힘이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돌봄노동이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적 관계노동이라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보람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오실 때 한 마디로 욕창에 편마비가 되니까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닦고 쓸고 그래 가지고 욕창이 다 가라앉고 저희들이 조금씩 도와 드려서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시다. 작년에 누워 계셨던 분이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보람도 있죠(참여자 4). 어르신 의 원할 때 만족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고맙다는 표현 등을 해 주실 때 보람을 느끼죠. ‘힘들지’, ‘고맙다’ 한 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죠(참여자 3).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제일 보람으로 느껴요. 가끔 칭찬도 받구요. 잘해준다고. 고마운 거 고맙다고 할 때 많이 느끼지요(참여자 7). 치매가 있고 그래도 잘해주는 거 느끼시더라고요. 고마움을 아실 때 보람을 느껴요(참여자 11). 진짜 여기 오고 정말 보람이 많이 있죠. 번비로 막 갈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물러 가지고 대변을 놓게 한달지. 이러면 그 기쁨은 진짜 크죠(웃음)(참여자 9). 죽는 순간까지 돌봐드리는 게 보람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3).

3.3.4 안타까움과 실망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 노년기는 아이들의 성장·발달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쇠약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좀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지요. 왜 그리 안타까우냐,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으니까. 크는 애들 같으면 몽실몽실 잘 웃고 뛰어 다니고 변화가 있지만은 여기 계신 어른들은 하루하루 갈수록 자꾸 쇠약해지고 자꾸 저거 하나 까. 상당히 안타깝지요(참여자 5). 솔직히 실망할 때도 많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밤새 안녕이라고 또 그냥 수습할 시간도 없이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고런 것도 종종 있지요(참여자 4).

3.1.5 ‘내 집이다’ 노인이 행복해 하는 일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다. 노인들이 시설 생활에서 '여기가 내 집이다' 편안함을 요양보호사들이 유사가족의 역할에서 무한책임감을 느끼는 행복감이었다.

어르신들이 편안해하시고 여기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 하실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집에 다니러 가셨을 때 들어가셨는데 아무래도 아들이나 며느님한테 신세를 저야하니까 부담스러웠잖아요. 여기 오면, 아 여기 와서 참 좋다.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잖아요. 저희들 의지해서 감사해 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좋지요(참여자 3). 어르신이 상추를 뜯으러 가자고 했는데 그걸 따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된장하고 마음껏 잡수시고 나서 너무 잘 먹었다고 몇 번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난다고 하실 때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참여자 1).

3.1.6 내 부모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일

요양보호사들은 기저귀를 차고서 자식도 몰라보는 딱한 노인들이 내 부모님처럼 생각되고 자식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치 내 부모에게 하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남이다 생각 않고 내 부모다 하고 때로는 잠깐 미울 때도 있지만, 내 부모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참여자 7). 내가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못하는 걸 목욕, 기저귀, 아플 때 기저귀 봐드리고 들여다 볼 때 자식들은 멀리 있으니까, 이런 것 안했을 때는 그런 것 몰랐는데 그전에는 대변 같은 것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내 자식이 내 얘기가 썩 것처럼 더럽고 한 것 하나도 없어. 내 자식 키우듯이 어른들이 딱하고 내 일인가 싶고 내 부모인가 싶고 자식도 몰라보고 딱해. 내 부모에게 하듯이 하면서 반성해 자꾸 깨닫고(참여자 2).

3.1.7 정년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가족 돌봄의 경험은 노인 돌봄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노인에 대한 친밀감, 이해 등에서 거부

감이 적고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면 정년퇴직 후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 힘은 들지만 다녀보니까 제2의 좋은 직업이었다.

건설회사 다녔는데 나이가 55세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집에 또 장인어른이 이런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들락거리다보니까. 나이도 먹고 이런 것도 있구나,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이런 것도 괜찮다 싶어서 2008년 여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참여자 4).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했거든요. 아동복지에서 17년 하다가 정년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보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장애인을 했어요. 근데 다시 인제 제2의 직업이 뭘까 생각한 게 어짜피 이런 일 쪽인가 생각이 들고 일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갖고 자연스럽게 왔죠(참여자 8). 직장에서 정년퇴직 해 가지고 집에 있는데. 친구가 소문을 듣고 한 번 가보자 자격증이나 따보자 1급 국가자격증 이니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나이 먹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참여자 10).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타인을 돌보는 능력 즉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내 나이도 60고개 넘고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르신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도 많고 내 나이도 60이 넘다 보니까 어르신을 섬기는 일에 흥미를 갖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성에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시설 운영에도 관심이 있어요(참여자 12). 경제적인 문제하고 내 자신의 적성에다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이, 연령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장래가 조금 비전이 있으니까 선택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5). 나이 먹어서 할 수 있고 하니까. 집에서 있으면 나태해지고 답답해지고, 일을 하면 활력도 생기고 아픈 것도 없고 가만 놓고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해 볼 생각이죠(참여자 6). 실질적으로 이 나이에 다른 직장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몇 개월 놀면서 자격증을 땀어요. 놓고 있으니까 재미로 하게 되고, 우수한 성적

으로 또 합격을 했어요. 80점 받았으면 우수한 성적이지 (웃음)(참여자 11).

3.1.8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노인 돌봄 노동은 봉사정신, 섬김의 정신과 사랑이 특별히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봉사다. 남을 위하는 거다. 서비스업이다. 많이 느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용 가지고 계시면서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소변과 대변 남들이 싫어하는 부분 도저히 안 되는 부분 다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으로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4). 어르신들 돌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도 많고 사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2).

3.1.9 남녀 호혜적으로 하는 일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90 대 10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요양보호업무는 남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직업적 접근이 어렵지 않은 중장년층 여성의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남녀 요양보호사의 협동이 필요한 호혜적인 일이었다. 체격이 큰 노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환자, 장소 이동 등에서 여성인력이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남녀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자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누워 계신다든지 중량이 아주 완전 헤비급 이런 사람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서 도움을 드려야. 혹시 이동을 할 때 확실히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남자어르신들은 목욕을 제가 거의 다 시키지만 여자 선생님들은 시트나 이불이나 옷을 갈아 입힌다든지. 대개 저도 여자 어르신들 목욕을 할 때 힘들고 체격이 크신 분들은 침대에 이동을 해 드리고 나머지 것 힘이 드는 거는 저가(참여자 4). 남자 어르신들은 제가 있으면서 여자 선생님들에게 되도록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참여자 5). 남자어르신들은 골격이 크시고 아무래도 체격이 크시잖아요. 저희들이 힘이 딸리잖아요. 어깨가 한 번씩 아플 때는 스트

레스를 받더라고요(참여자 13).

3.2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연구 대상자들의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에서는 ‘치매노인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무시와 편견이 주는 스트레스’, ‘환경적 요소에서 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유연한 반응’, ‘대화로 스트레스 풀기’, ‘약기와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 풀기’, ‘상황별 머리 짜기 기술’로 이해되었다.

3.2.1 치매노인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들에게 노인 돌봄노동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들의 증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화남을 비롯한 언어·신체적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가 치매노인이므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새벽에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치매니까 인지능력이 없잖아요. 말이 언어가 안 통해요. 그게 힘들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참여자 13).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의사소통 잘 안돼서. 치매 어르신들은 화내고 때리기도 하고 모르니까 치매어르신 돌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참여자 7). 어른들 이해하면서도 본의 아닌 정신으로 영혼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계가 올 때, 억지 소리를 할 때(참여자 6). 치매있는 분들은 집착이 있으세요. 계속 그 쪽으로만 가요. 한 번 신발 달라고 그러면 신발 있어도 또 달라고 그러고, 가자 그러고 안 가면 또 가자고 그러고, 대변 같은 거는 집착을 하시잖아요. 보시고도 바로 또 화장실 가자고 조르시고 같은 말 같은 행동 반복해요(참여자 4). 목욕할 때 보면 여보 여보 부르는 소리도 하시고 슬쩍 슬쩍 몸 이려는 것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엄청 화내고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요란스럽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은 거 같아요(참여자 2).

3.2.2 무시와 편견이 주는 스트레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돌보는 업무와 식사, 배설, 목욕, 이동, 청소, 세탁, 외출 돕기 등의 일상 업무 보조와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주요한 역할 중 옹호자 역할은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처벌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들이 돌봄 현장에서 받는 무시와 편견으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조금 인지가 있는 분들이 자기 집 식모처럼 생각한다든지 완전 하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기죠(참여자 2). 인지 있는 분들은 좀 무시한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참여자 10). 전에 계시던 분들은 여자를 깔보고 때리기도 하고 치매 있으신 어르신은 완고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 까짓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참여자 5). 간호사님들하고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어요. 요양 쪽으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간호 팀에서 배려를 못해 주고...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거 마음 적으로 좀 힘들어요(참여자 1). 어르신들이 이젠 아닌데 단지 아프다는 이유로 어르신의 의견은 존중되고 일할 때 느끼는 의견은 묵살될 때(참여자 14).

3.2.3 환경적 요소에서 오는 스트레스

웁은 움벌레라는 0.4mm 정도의 작은 진드기가 피부 속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병을 말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된다.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특히 밤에 심하다. 대상자는 물론 동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인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동침대는 대어폭목이다. 시설의 수동침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을 낮추는 장애요인이었다.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문제가 피부병 있는 어르신을 만난다거나 움이라던지 이런 어르신을 만났을 때 힘들어요(참여자 9). 설비가 좋으면 훨씬 쉽게 되는데, 침대가 자동이면 일하기가 쉬운데(참여자 14). 침대를 수시로 올리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어요(참여자 15).

3.2.4 스트레스에 유연한 반응

요양보호사의 숙련된 수발자 역할은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말

벗과 상담자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 노인의 이상적 행동에도 유연한 반응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그냥 날려버려요. 팡팡 내 마음에 물어 두면 마음에 병이 들잖아요. 어짜피 일을 할 바에는 힘든 일을 하려고 뛰어 들었으니까 날려버려요. 그냥 마음으로 자꾸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참여자 13). 소리치고 그야말로 심한 욕도 하시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 주는 수밖에. 조금 기다렸다가 안정시켜드리고 그러면은 또 좀 나아지셨다가 또 갑자기 그러시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참여자 2).

어르신들이 밤에 소리를 지른다는가 할 때, 다른 때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깐 그러려니 합니다(참여자 12).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죠. 워낙 나는 내공이 쌓여 있는 사람이라(웃음) 스트레스 같은 건 안 받아요. 이것 말고도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참여자 6).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깐요(참여자 10). 오래 일 해 보고 하니깐 더 목소리를 낮추고 참아야죠(참여자 3). 어르신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보호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위해서 참아야죠(참여자 9).

3.2.5 대화로 스트레스 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푼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분노해결 방법이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한과 눈물을 빨래터에서의 대화로 방망이질로 풀었다[17]고 한다. 요양보호사의 동료간의 대화로 풀어나가는 스트레스 관리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해결 방법이었다.

요양보호사들 하고 대화로 많이 풀어가죠.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아침에 힘들게 일하고 나갈 때도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풀고 나가죠(참여자 2). 일단은 집에 가서 나름대로 푹 쉬고(참여자 9) 그때그때 웃으면서 넘기고 다 환자시니까 마음을 돌리죠. 좋았던 점 생각하고(참여자 7). 잠을 안 주무시고 기저귀 뜯고 이리저리지만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병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지(참여자 1). 자기 정신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참여자 1). 다른 어르신들이 웃기고 그러면 없어져버려요. 웃고 뺏하면 다 잊어버려(참여자 7).

3.2.6 악기와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 풀기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 재미있고 기분 좋은 마음을 먹으면 활기가 넘치고 의욕적인 생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면서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리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마음의 건강함을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 관리 및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다스리기 중 하나인 생활 습관과 마음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저 나름대로 퇴근해서 민속 악기를 좀 배워요. 장구, 북, 태평소 등등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때리든지 불든지 신나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폭 자면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4). 종교 활동하면서 좋아하는 것 하면서 독서하고, 음악 감상하고 악기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참여자 12).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른다. 어르신들 앞에 까불고 논다(참여자 14).

3.2.7 상황별 머리 짜기 기술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노인은 각기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활 습관, 건강상태 및 가치관 등도 다르다. 치매 대상자들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감정 상태에만 반응한다.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분노를 느껴 파괴적 행동을 할 수 있다. 파괴적 행동은 치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지치게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인생 경험에서 쌓은 기술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때그때마다 머리를 짜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막 와서 막 도둑 뭘 년 하며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욕하면 전혀 안 돼. 아유 어르신.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건 아닐 거예요 하면은 단기 기억이 상실되잖아요. 고 때만 잘 넘기면 또 언제 그랬나하시고 그래요. 이게 기술

이 필요해요. 정말 사람 다룰 수 있는(참여자 8). 지면 돼. 무조건 지면되는데 스스로가 미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참여자 4).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달래지. 어른들한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약이에요. 사탕도 드리고(참여자 5). 약간 성적인 그런 얘기 할 때. 태연하게 이 나이에 뭐 쓸모가 있다고 기능도 안 쓰는 걸. 뭐 그렇게 하시냐고. 덤덤하게 받아넘기죠(참여자 15). 노출을 하시면 가려드리고 자제시켜드리고 보고 드리고 약 쓸 수 있도록 보고 드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한테 그런 쪽으로 병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병이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우리도 받죠. 외부에서 오시죠(참여자 2).

3.3 돌봄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 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는 ‘인생 공부’,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옛날 같으면 못하는 나이의 일’로 이해하였다.

3.3.1 인생 공부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인 자화상을 미리 보는 듯 깨닫고 있었다.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등 인생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년기 인생을 선 학습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삶의 자세에 대한 자기반성을 경험하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노후에 늙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겠다. 인생 공부 많이 되지요. 미래에 대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9). 우리가 또 맞이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자신의 노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자화상을 미리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참여자 4). 나의 미래를 조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내 미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요(참여자 10). 점점 나이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느낀 점도 많아요(참여자 7). 내 부모에게 하듯이 하면서 반성해 자꾸 깨닫고(참여자 2)

3.3.2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요양보호사는 시설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

계에 있다[18]. 죽음은 사망 또는 임종을 의미하며, 생명의 정치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인들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생의 마지막 단계를 아름답게 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죽음은 슬프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차츰 죽음불안감이 감소하고 있었다.

며칠은 잠을 못자요... 깨끗하게 성스럽다. 아 이게 임종이구나... 처음 같지 않고 지금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중요한 건 회들이 아름답게 해 드려야지(참여자 4). 며칠 동안은 마음도 안 좋고 착 갈아져요. 제가 돌보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너무 슬프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잘 할 걸...(참여자 12). 처음에는 좀 슬프고 감정이 안 좋았는데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내가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 편안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잘 해야겠다 자숙도 하죠(참여자 8).

3.3.3 옛날 같으면 못하는 나이의 일

연구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은 높았고 이직의사는 낮았다. 집에 있으면 아프기만 하고 더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힘닿는데 까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옛날 같으면 우리 나이에 못하는 건데. 그런 생각도 없고. 저는 옮겨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요. 나이도 있고 하니 까 여기만 있고 싶어요.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참여자 3). 저는 앞으로 10년 하려고 해요(참여자 6).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 봤는데. 건강이나 나이가 허락될 때까지 하고 싶어요(참여자 7).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더 힘들 거 같아요. 오히려 다니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하려고 해요(참여자 3). 저는 이직 생각 안 해요. 꾸준히 힘닿는데 까지 끝까지 해 볼 거예요. 그 리해야 뭔가 보람도 느끼고 공을 세우지,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두면 그건 아니잖아요(참여자 13).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과 의미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질문은 ‘준고령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돌봄노동이 주는 성찰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준고령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노동에 대하여 ‘좋아서 하는 일’, ‘웃음을 찾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 ‘안타까움과 실망’, ‘내 집이다 노인이 행복해 하는 일’, ‘내 부모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일’, ‘정년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 ‘남녀 호혜적으로 하는 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한 돌봄 노동의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노동은 자아실현의 일이다. 예를 들어 좋아서 하는 일, 웃음을 찾는 일, 보람을 찾는 일은 요양보호업무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요양보호업무가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매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욕구 5단계 중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높은 단계로서 자기완성, 삶의 보람, 자기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이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건강상태 및 가치관 등도 다르다. 따라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의 원칙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인생 경험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요양보호 대상 노인들의 욕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서 고령층 여성들이 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1]은 준고령 남성요양보호사에게서도 나타났다.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의 긍정적인 경험은 저임금, 고된 업무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1].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일의 가치에서 노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하고 활력과 삶을 성찰하는 기회[9,1]로 보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에게 노년기의 발달은 안타까움과 실망할 때도 있는 일이었다. 돌봄노동은 정년퇴직 후에도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준고령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만족감이 높다[13]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봄의 사회화 과정이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19,20]. 이들이 제공하는 정서적·심리적 서비스의 정도가 노인들의 심리 사회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9]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신체적으로 힘든 역할에서는 남녀요양보호사가 호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었다. 돌봄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기존의 문화 논리[21,8,22]에서 남녀 협동적인 일의 인식전환[9]은 긍정적이며, 돌봄을 여성의 일로 당연시해서는 안된다[21]. 남성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23]은 돌봄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은 노후행복의 일이다. 내 집이다 노인이 행복해 하는 일, 내 부모에게 하듯이 편안하게 하는 일, 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헤드리고자 하는 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9]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효의 가치 상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벗어나 ‘효의 재해석’으로서 요양서비스는 효의 대안 책이었다[2].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등이다. 노인들이 시설 생활에서 ‘여기가 내 집이다’ 편안해함은 유가족의 역할에서 무한책임감을 느끼는 요양보호사의 행복감이었다. 또한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노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언어·신체적 폭력, 화냄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치매노인이 욕설, 폭력 등의 공격행동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24]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치매 노인의 이상적 행동에 대하여 인생 경험에서 쌓은 기술 등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 치매에 대한 이해와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의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익히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휴식 프로그램을 포함한 체계적인 직무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무시와 편견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는[21,1] 현상은 돌봄 대상자에 대한 교육 강화[25]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의 수동침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을 낮추는 장애요인이므로 전동침대로 대체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돌봄노동은 평생학습의 일이다. 사람은 평생 배

워야 하며 평생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 돌봄노동을 통하여 노년기 인생을 공부하는 삶의 현장으로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기를 아이들의 성장·발달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자꾸만 쇠약해져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든다고 하였다. 요양보호사들은 과거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내면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하였다[9]. 연구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은 높고 이직의사는 낮았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 종사자 중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노인들의 생의 마지막 단계를 더욱 아름답게 헤드릴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노동 경험을 통하여 양적연구로 파악할 수 없었던 연구 참여자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한 표본의 수가 15개 소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에 따라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준고령 요양보호사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경험이므로 젊은층의 요양보호사들과 재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연령과 시설, 지역에 따른 다각적 측면에서 관점을 고려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H. Seo, "The Study about the experience of the paid care labour on th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4.
- [2] S. Y. Hong, J. H. Seo, "The Study on commodification of filial piety through Long term care servi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7. pp. 51-84.
- [3] Chen, S. X., Bood, M. H. Tang, D. 2007.
- [4] Zhan. H. J., Reng, Z., and Luo, B. Placing Elderly Parents in Institution in Urban China, *Research on Aging* 30, 543-571. 2008.
DOI: <http://dx.doi.org/10.1177/0164027508319471>
- [5] N. S. Shin, "An Influence on Job Changing Intention by Working Stress fir Home Care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4.

[6] Y. M. Jeong, Y. S. Kang, "The Effect of Care Workers' Assistance Services on Behavioral Change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 4 pp. 1675-1682, 2013.

[7] K. L. Kim, "Study on Improving the Publicn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014.

[8] H. K. Choi, "A Study on 'Good Care' Perceived by Dierct Care Workers of Nursing Facilit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8, pp. 31-58. 2010.

[10] S. J. Kim, "A study on Emotional Labor through Examination of Care Assistant's Caring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14.

[11] Y. S. Lee, "A Study on Carework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1.

[12] Omery, A.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pp. 49-63. 1983.
DOI: <http://dx.doi.org/10.1097/00012272-198301000-00010>

[13] J. H. Park, S. H. Byun, "The Effects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n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pp. 87-97. 2012.

[14] Giorgi, A.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pp.10-19. 1985.

[15] K. L. Shin, et. 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wha womans university. pp. 243-245, 2004.

[16] Lincoln, Y. S. & Guba, E. G. *Effective Evaluation(4th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1985.

[17] S. H. Byun, "Effective Counselling for Married Couples Counselling", Goyang: Korea Adolescent Protection. 2010.

[18] E. J. Jung, S. H. Byun, "Impact of Education for Welding on Senior Welfar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1), pp. 215-222. 2012.

[19] C, B. Kang, "A Study on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pp. 193-209. 2011.

[20] H. J. Lee, S. Ho. Kwon, "Effects of Caregiver's Job Environment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1, pp. 125-144. 2011.

[21] S. H. Kwon, "Social Specificities of Care Labor in South Korea"; Focusing on Gendered Relational labor,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4.

[22] Y. T. Kim, H. W. Kim, Y. B. Yeom, "A Study on the critical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of care giver between

long term and home base care service center",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6, pp. 53-76.

[23] M. S. Lee,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Family Caregiver who Supports a Family Member Recognized as the Beneficiary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2012.

[24] H. H. Kim, "The effect of geriatric care helper's knowledge of dementia on job stress, self-efficiency and care fulfillment",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2012.

[25] S. S. Kim,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workers working in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2012.

변 상 해(Sang-Hae Byun)

[정회원]



- 2007년 8월 : 백석대학교 가족상담 전공 상담학박사
- 2006년 9월 ~ 현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과학, 사회복지

이 치 숙(Chee-Sook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서울벤처대학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과정수료)

<관심분야>
사회과학, 사회복지